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11월 소식

기획

홍콩에서 열린 한우 심포지엄

자조금 소식

한우경진대회·지역 한우 축제

한우 이모저모

한우의 질병 관리(하)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09



06



20



26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6년 11월 소식

기획

- 04 홍콩에서 열린 한우 심포지엄
- 06 취업·창업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자조금 소식

- 08 11월 1일은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 10 도별 한우경진대회
- 11 이근수 위원장 축산자조금 회장 선출 외
- 12 한우고기 건식숙성 설정 연구 결과 외
- 14 TV방송 속 '고지방 다이어트' 식품 한우

한우 이모저모

- 16 다큐멘터리<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7 책<지방의 역설>③ 저지방식단의 위험성
- 18 컨설팅 연재⑧ 한우의 질병 관리(해)

농장 탐방

- 20 경기도평택군 우전목장의 이병환 대표

한우 시장

- 22 11월 한우 도매가격 전망

뉴스 클리핑

- 24 10월 한우 관련 이슈

포토 뉴스

- 26 사색에 잠긴 송아지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2016. 11 통권 제133호 비매물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발행인** 이근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2층 홍보마케팅부 **전화** 02-522-3608 **팩스** 02-522-4314

기획·편집·인쇄 하나로어드컴 (02-3443-800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홍콩에서 열린 한우 심포지엄

한우자조금은 한우 산업의 위기를 헤쳐 나가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홍콩에 방문해 한우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우 수출 확대 전략을 위한 심포지엄

한우자조금이 홍콩 현지조사를 통해 한우 수출 확대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광고PR실학회와 홍콩 중문대 교수진과 연합으로 10월 3일, 홍콩 중문대학교 아시아폴리지내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한우 수출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우에 대한 홍콩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동향, 한류가 홍콩 소비자의 외식문화에 미친 영향, 한우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다. 한국 측은 최은섭 한라대 교수, 지준형 국민

대 교수, 홍문기 한세대 교수 등이, 홍콩 측 중문대에서는 Annisa lee lai, Louis leung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지 선호도와 타깃 분석을 통한 접근 필요

심포지엄을 위한 홍콩 현지 조사 결과, 한우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한국문화와 K-POP, 한국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소비자들은 한우의 경우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소고기들의 경우 '부드러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꽃등심을 먹어 본 홍콩 소비자들의 경우 한우를 재규



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홍콩 소비자들은 여전히 홍콩에서 한우가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홍콩시장에 이미 다수의 수입제품이 진출한 상태이며, 홍콩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다는 소비자 조사결과를 반영해 한우의 주 타깃은 25-55세 고소득 청년층-중장년층이라는 분석결과가 도출됐다. 현재 홍콩은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침사추이, 사틴 지역이 현재 가장 매력 높은 상권이고 판매능력 및 보유한 유통망이 우수한 현지 수입업체를 선정해 고급레스토랑, 호텔(4성급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직영 레스토랑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이다.

한우 수출, 한우산업 난관의 탈출구 되길

한국광고PR실학회 지준형 교수는 “현재의 이용추세에

맞춰 소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홍콩 중문대학교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한우농가들은 더욱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소비촉진을 위한 한우직거래장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우산업의 난관을 타개하고자 한우의 홍콩 수출을 기념해 우리 한우의 우수한 맛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전하며, “한우직거래장터에서 품질 좋은 명품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을 소개하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 홍콩 침사추이의 한우 판매장 및 지스코 매장에서 한우 시식회를 개최해 홍콩 현지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우자조금, 취업·창업 박람회

지난 10월 11~12일, 한우자조금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축산 및 수의 분야 취업·창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한우 알리기에 나섰다.

한우 홍보부스 운영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축산자조금연합·축산물 품질평가원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축산·수의 분야의 기업들과 취업·창업 희망자 간 정보 교류를 통해 기업들의 인재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취업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는 분야의 관계자들과 업계 종사를 희망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취업관, 창업관, 홍보관으로 구획을 나눠 진행한 이번 박람회는 공공·농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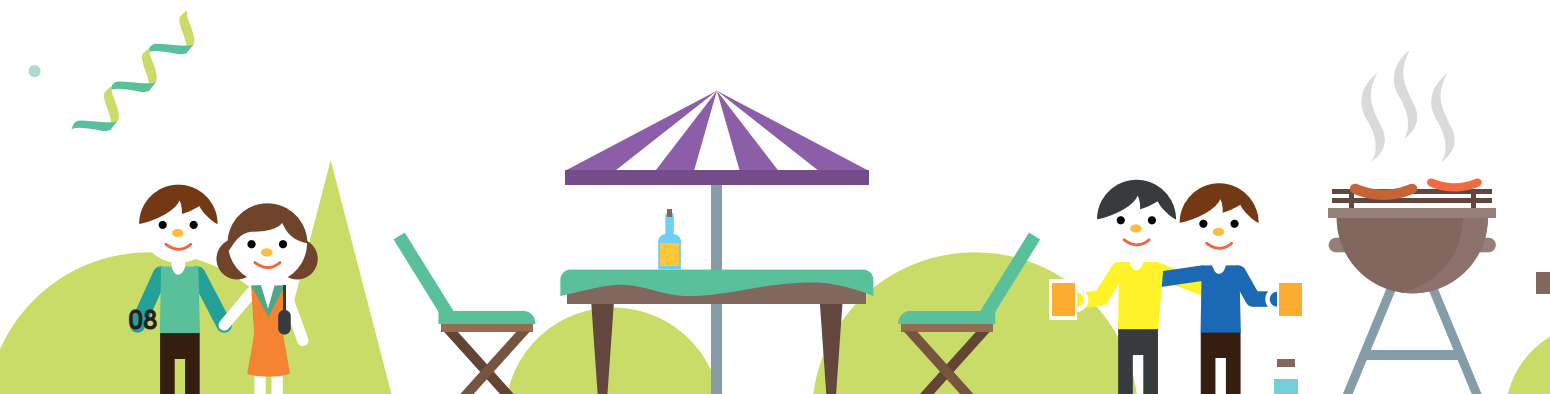


료·가공·유통 등 축산·수의 분야의 100여 개 기업 등이 참가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취업과 창업 관련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예비 한우산업 종사자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한우 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자조금의 설립 취지와 활동, 한우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취업 준비생들은 한우자조금 부스에 방문해 채소와 샐러드를 곁들인 한우 등심을 시식했으며, 다양한 한우 부위를 맞추는 다트 게임에 참여해 경품을 받기도 했다. 김재수 농식품부장관도 한우자조금 부스를 방문해 이근수 위원장과 함께 등심을 시식하기도 했다.

이근수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축산 인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산업 정보 교류 등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한우자조금도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MBC 야외주차장, 전남은 10월 28일 목포 평화광장, 대구·경북은 11월 1~2일 안동봉화축협, 경남은 10월 29일 남창원농협, 제주는 11월 5~8일 제주종합경기장 광장, 울산은 11월 1일 울주군청, 강원은 춘천, 원주를 비롯한 15개 시군 각 지역에서 행사가 열린다.

한우자조금은 또한 '2016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맞아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 할인 판매 행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크고 작은 유통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할인 판매는 전국의 대형 유통점,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전문판매장,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등 약 1,600여 매장에서 진행된다. 11월 1일부터 6일까지 2등급 이상의 한우 등심, 불고기(우둔, 설도, 앞다리), 국거리(목심, 사태)를 판매할 예정이며, 등심은 1++등급 9,100원, 1+등급 8,100원, 1등급 6,900원에, 불고기와 국거리는 1++등급 4,100원, 1+등급 3,900원, 1등급 3,700원의 가격에 제공한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한우농가 김영란법 돌파 구 찾는다'다. 산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해 한우산업을 민족산업으로 정착시키고, 소비자 지향적인 한우고기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 1 경기도 한우 젖소경진대회(10.7~8)
- 2 강원 축산 경진대회(10.14~15)
- 3 충남 좋은 가축 선발대회(9.22)
- 4 전북 한우경진대회(10.11)
- 5 경북 한우경진대회(10.18)
- 6 경남 한우경진대회(9.21)

올해로 19회를 맞이한 전국 한우인들의 축제 ‘한우경진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각 도가 주최하고 농협지역본부가 주관하며 한우자조금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사육 기반 확대를 위한 우수 혈통 발굴, 시장경쟁력 확보, 소비자 홍보를 통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 9월 말~10월 초에 개최됐으며, 전남은 11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을 제외한 총 7개 도에서 진행된 이

번 대회는 한우경진대회를 비롯해 생축 품평회, 한우 브랜드 홍보관, 시식행사, 전시 등을 함께 진행해 도민들과 한우농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군에서 온 뛰어난 한우들이 출품돼 경합을 벌였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농가와 시·군에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각 도는 앞으로도 한우 개량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생산·번식기반 안정에도 힘을 쏟아 지속 발전 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제4차 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최

한우자조금이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맞이해 한우고기 할인행사와 대규모 숯불구이 행사 등 한우 소비 촉진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한우자조금 사업예산 변경과 대의원선거 추진 일정 등을 의결했다.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는 1억 4천만 원의 사업예산을 증액해 5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사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한우 소비촉진 할인행사에도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판매 목표를 약 180억 원(6일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한우 수출지원에 2,250만 원을, 재난복구지

원에 4,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는 교육 및 정보제공 예산에서 감액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위촉된 관리위원은 임관빈, 박영철, 김충완, 이현태, 소순배, 박병남, 민경천 등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임관빈 위원이 선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선거를 공고 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12월 12일(경기, 강원, 충북), 13일(경북, 경남, 제주), 14일(전북, 전남, 충남)에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근수 위원장, 축산자조금연합 회장 선출

한우자조금 이근수 위원장이 2017년 축산자조금연합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축산자조금연합은 지난 11일, 제3차 축산자조금연합 대표자 회의를 열어 2017년 축산자조금연합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부회장과 간사에는 각각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과 김병은 오리자조금관리부위원장이 2016년에 이어 연임됐다.

이근수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 축산자조금연합이 축산에 대한 오해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2017년에도 여세를 몰아 우리 축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근수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2017년도 축산 인식개선 캠페인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다. 



조사연구①

한우고기 건식숙성 방법 설정 연구

한우자조금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 '한우고기 건식숙성 방법 설정 연구'보고서가 완료됐다. 한우 건식숙성법 가이드라인과 표준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다. 건식숙성 시설에 따른 품질향상 효과와 최적의 기간, 유통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다.

건식숙성 시설에 따른 품질

총 숙성감량율은 전문 건식숙성시설이 가장 낮았고, 간이 건식냉장고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소가 거세수소보다 높은 감량 비율을 보였으며, 육질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량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식숙성 적정조건

채끝과 우둔은 각각 35일 건식숙성 시 가장 높은 감량율을 나타냈다. 채끝은 건식숙성기간에 따른 기호도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보섭, 우둔 부위는 28일, 35일간 건식숙성했을 때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건식숙성 기간

건식숙성육은 최소 14일 이상 숙성해야 일반육과 차별화된 풍미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채끝과 보섭, 우둔 모두 21일 이상 건식숙성하되, 채끝은 주 소비층의 취향에 맞춰 숙성기간(21, 28)을 결정해야 하고, 보섭은 28일 혹은 35일 숙성 시, 우둔은 28일 숙성 시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유통 및 판매금액

간이 건식냉장고 방식으로 건식숙성하는 경우, 일반육의 판매금액 대비해 채끝은 154%, 보섭은 146%, 우둔은 138% 수준으로 판매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식육 판매대 판매조건(5℃, 랩 포장)은 3일 이내이며, 불가피하게 유통을 위해 진공포장하는 경우에는 냉장(2℃), 냉동보관(-24℃) 방법 모두 21일까지 저장 가능하다. 🐮



국내 한우도축장 예냉감량 실태조사 연구

한우자조금이 한국육류연구소에 위탁한 ‘국내 한우도축장 예냉감량 실태조사 연구’는 예냉감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표준감량표를 개발, 규모별 예냉 조건을 도출해 경감 방안을 수립하고자 진행됐다.

계절에 따른 예냉감량 비율

도축 물량이 안정돼있는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계절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도축 물량의 변동이 있는 중규모와 소규모 도축장의 경우 동절기에서 초여름으로 계절이 전환될 때 예냉감량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과 육질에 따른 예냉감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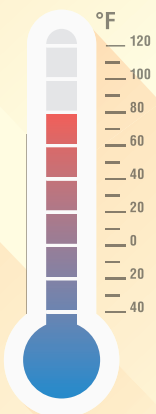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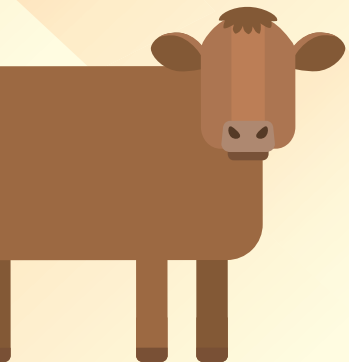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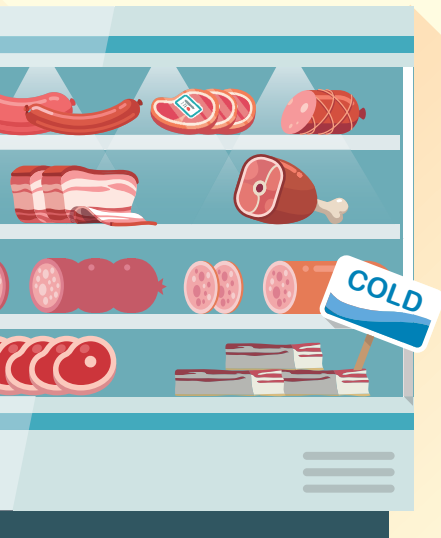
대규모 도축장을 기준으로 거세우 1.65%, 암소 1.84%를 기록하며 암소가 거세 수소보다 높은 예냉감량을 보였다. 육질등급이 낮아질수록 예냉감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규모 도축장 기준 1++등급 1.63%, 1+등급 1.73%, 1등급 1.82%, 2등급 1.99%, 3등급 2.13%을 기록했다.

주중·주말 차이보다 오히려 현수 위치에 따라 더 큰 차이 발생

59개의 도축장 실태조사 및 3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실제 개체·개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말 도축분과 주중 도축분 간의 예냉감량 비율 차이는 오히려 같은 날 도축해 동일한 예냉실 안에서 예냉한 소도체간 예냉감량 비율 차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도축장 기준으로 주말 도축분과 주중 도축분 간의 예냉감량 비율 차이는 0.32%p(1.209kg)였으며, 같은 날 도축해 동일한 예냉실 안에서 예냉한 소도체 간의 예냉감량 비율의 차이는 0.8%p(3.16kg)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말도체의 예냉감량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 도축장 예냉감량 노력에 대한 정부사업의 평가항목 반영, 도매시장 경매 직전에 계근한 냉도체중으로 경매 실시, 도축공정 중 박피 및 지방트리밍 공정의 전국통일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TV방송 속 ‘고지방 다이어트’ 식품 한우

지난 10월의 건강 이슈는 ‘고지방 다이어트’였다. TV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그 중심에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한우가 우뚝 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고지방 다이어트’의 최적 음식을 찾아서

10월 24일 방영된 SBS<모닝와이드>에서는 ‘한우고기 먹고 살 빼기’라는 주제로 한우고기의 특징점이 소개됐다. 한우고기를 이용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이어트 방법을 전했다. 이 여성은 마블링이 풍부한 한우를 섭취하며 한 달간 약 7kg을 감량했다. 건국대학교 이홍구 교수는 “지방식을 하면 탄수화물 식이에 비해 당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막을 수 있다. 특히 마블링은 지방식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된다”며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양준상 전문의는 “포만감이 들 정도로 적당히 먹으면 된다.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꼭 지방의 비율을 70~80%로 맞춰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10월 26일에 방영된 MBC<오늘저녁>에도 고지방 다이어트가 소개됐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한 일반인 여성 김희라 씨가 자신의 고지방 다이어트 방법을 직접 소개했다. 그녀는 희귀병인 침샘암 수술 후 새 삶을 결심하고 운동과 식단조절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를 전했다. 또한 그녀가 자주 먹는 식단인 한우불고기와 두부부침을 직접 만들어 단백질 식이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강재현 의사는 “고지방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나 비타민B를 비롯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근육량이 적은 젊은 여성과 중장년층은 다이어트 시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매끼 단백질 음식 한두 가지를 섭취해야 한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고지방 다이어트 시 단백질 섭취를 강조했다.



가족 모임에도 좋고, 우송 상품으로도 좋은

10월 16일에 방송된 SBS 드라마<끝에서 두 번째 사랑>에서는 가족 모임 식탁에 한우 샐러드가 등장해 한우고기 소비를 촉진했다.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은 한우자조금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지진희가 출연하는 드라마로, 주인공 지진희와 김희애가 데이트 시 한우 샐러드를 취식하는 등 한우 관련 에피소드를 노출했다.

또한 10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주 동안 KBS1<노래가 좋아>에는 한우 선물세트가 상품으로 등장한다. 한우 선물세트는 노래대결을 통해 인기상을 수상한 팀에게 전해진다. 🐮

KBS 〈생로병사의 비밀〉 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 고기의 이점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됐다. 고기가 ‘어떻게’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지 소개됐다.



지난 10월 5일에는 고기의 이점에 대해 다룬 KBS 다큐멘터리 〈생로병사의 비밀-고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방송됐다.

이 방송에서는 꾸준한 육류 섭취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3개월 동안 고박 불면증을 앓았다고 고백한 한 여성은 “3개월 정도 고기를 섭취하자 불면의 빈도가 확 줄었다”며 고기의 효과를 주장했다. 실제로 고기 속에 있는 트립토판은 불면증을 해소한다. 트립토판이 혈액에 녹아 뇌로 이동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세로토닌은 생체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합성해 수면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고기의 염증 치료 효능도 소개됐다. 평소 고기를 섭취하지 않던 60~70대 참가자들에게 2주 동안 고기를 섭취하며 근육 운동을 하게 해 그 변화를 지켜본 것. 실험에 참여한 네 사람은 2주 뒤 혈당과 중성지방, 염증 수치가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늘리면 폐렴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노인과 관련된 염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의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국립암센터에서 암 치료 후 몸을 회복하는 환자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빼놓지 않고 제공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속설과 반대로 적절한 양의 육류가 면역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고기를 필요 이상 섭취 시 비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술과 고기를 함께 먹었을 때 더 많은 고기를 섭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에서는 ‘음식을 섭취하면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렙틴이 분비돼 식욕을 억제하는데, 술을 마시면 렙틴이 30% 이상 감소해 식욕을 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음주와의 섭취를 제한하라고 당부했다. 

책<지방의 역설> 연재 ③

저지방 식단의 위험성

‘지방은 해롭다’는 가설이 미국 식품계를 지배했을 무렵, 저지방 식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지방의 대체 식품들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학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 교수들은 이에 대해 ‘앤설 키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렌스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면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총칼로리를 줄이는 것도 같은 효과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아렌스는 쌀을 많이 먹음에도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낮은, 전후 일본의 빈곤한 농민들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높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당뇨 환자들에게서도 흔히 나타나며 당뇨 환자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알브링크는 두 질환에는 과도한 체중 증가라는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알브링크가 밝혀낸 원인은 탄수화물이었다. 오늘날에는 이에 대한 증거가 속출하고 있지만 알브링크와 아렌스가 처음 발표한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상당히 생경한 아이디어였다. …저지방 식단은 필연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고기와 유제품을 줄이면 곡물과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 두 가설은 상충했다. 그러나 마치 영양학계의 카산드라인 양 아렌스는 매우 존경받는 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발췌: <지방의 역설> 83p~

지방의 역설	
Nutrition Facts	
Amount Per Serving	Calories from Fat 110
Calories 300	Calories from Fat 110
% Daily Value*	% Daily Value*
Total Fat 15g	30%
Sodium 20g	40%
Total Carbohydrate 20g	40%
Dietary Fiber 5g	10%
Sugars 10g	20%
Protein 10g	20%
Vitamin A 10%	Vitamin C 10%
Calcium 10%	Iron 10%



‘포화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앤설 키스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두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던 피터 아렌스 교수였다. 그는 시리얼, 곡물, 밀가루에 들어 있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또한 지방을 줄인 식단이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포화지방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가설로 인해 아렌스의 주장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라이저 교수 역시 ‘육류에 있는 특정 유형의 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의 인식과 학계 분위기를 주도하는 앤설 키스의 영향력을 꺾지는 못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주장이 이렇게까지 학계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오랫동안 심장 질환 연구를 담당했던 조지 맨은 ‘키스는 당차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나는 키스의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연구 지원금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맨은 1978년에 교수직을 은퇴하며 “한 세대 동안 심장 질환 연구는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었다”고 단언했다. 

한우컨설팅 연재⑧

한우의 질병 관리(하)

한우 번식우의 경우 생식기 질병과 번식장애, 유산을 일으키는 질병을 비롯해 전염병과 피부질병, 우결핵 등을 조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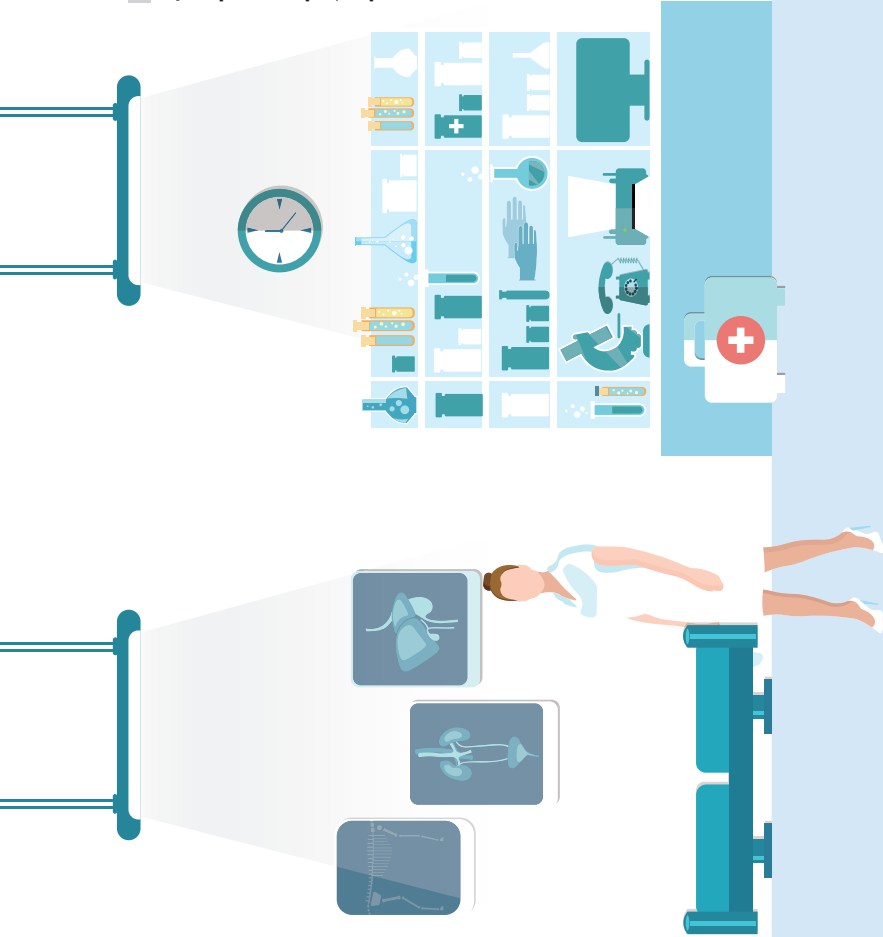


피부 질병

버짐(윤선증, 링웁)

감염된 소가 비벼댄 자리에 다른 소가 접촉하거나, 소끼리 몸을 비비다 전염된다. 머리와 목 등에 있는 털이 부스러지고 비늘이 생기는 것이 특징. 탈모와 가려움을 일으켜 발육 부진으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감염된 소는 다른 소와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예방을 위해 축사나 기구에 2.5~5.0% 석탄산액이나 1% 가성소다액을 분무한다. 항곰팡이제를 1~2주간 먹이면 치료 효과가 있고, 유행연고와 카네스텐 분말 등 혼합연고를 2~3일 간격으로 3~4회 환부에 바르면 된다.



유두종(사마귀)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소의 전염병으로서, 머리와 목, 젖꼭지 등에 사마귀를 형성한다. 때로는 눈 결막과 위점막에도 발병한다. 주로 접촉이나 주삿바늘을 통해 감염되고 어린 송아지나 허약우에게 많이 발생된다.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된 소와 접촉을 피해야 예방할 수 있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경향이 있다.

비육우 질병

급성 과산증

갑작스런 농후사로 대량 섭취로 제1위 내 발효가 일어나 젖산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이로 인해 제1위 내 pH가 낮아지는 증세다.

정상 미생물들이 파괴되고 원충수가 감소해 소화불량이 발생한다. 과도한 젖산으로 제1위 내 삼투압이 증가해 몸속의 체액이 유입되어 심한 탈수증상과 설사를 일으킨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오줌의 양이 적어진다. 심해지면 호흡수와 맥박수가 증가하고 이를 갈며 뒷발로 배를 차는 등 복통증세를 보인다. 증세가 지속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며 신음소리를 내다가 죽게 된다.

농후사료를 갑자기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후사로 급여를 중단하고 조섬유가 많은 청초와 조사료 위주로 급여하면 된다.

고창증

제1위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질병이다. 가장 큰 원인은 농후사료의 과식이며, 습기가 많은 사료나 변패된 사료, 발효성 청초 등을 과식했을 때 발생한다.

물에 탄 가스제거제나 소화제를 먹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간농양

제1위염이나 외상성 복막염, 송아지의 제대염 등과 같은 감염병에서 전이된다. 급성인 경우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던 소가 갑자기 죽기도 하며, 만성인 경우 소가 점차 마르고 허약과 함께 황달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방은 제1위염과 복막염, 제대염이 발생하면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치료는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되는 경우가 있으나 발견되면 바로 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결석증

비육우의 대사성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농후사로 과다 급여나 대사장애 등이 원인이다. 오줌을 소량씩 자주 누게 되고, 배뇨시 괴로워한다. 오로계통에 염증이 존재하거나 세균이 증식될 때, 거세를 일찍 실시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인 함량이 높은 밀기울이나 쌀겨 등의 사료를 많이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소금이나 미네랄블록 급여로 수분 섭취량을 최대화해 소변의 양을 증가시킨다.

제염염

농후사로 과다급여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위 내 이상발효로 히스타민이 과량 생성돼 발이 붓거나 통증을 느끼게 된다.

차기운 물에 발을 담그고 항히스타민제와 항생제를 주사하며 항생물질 연고와 강육도 등을 발라 준다.

파상풍

못이나 쇠붙이에 찔린 상처, 발굽의 창상, 거세 상처, 제각 상처 부위로 파상풍균이 침입해 발생한다. 사료를 먹지 못하고 침을 흘리며 호흡수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체온이 41℃ 내외로 오르다 쓰러져 3~4일 이내에 죽게 된다.

농장 바닥에 못이나 철사가 없도록 해주고 거세 및 제각시 기구를 잘 소독한다. 수술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고 항생제를 주사한다. 항생제와 해열제, 영양제를 투여하고 인제용 파상풍 항혈청을 투여하면 치료할 수 있다. 

보증종모우 3두 생산한 한우육종농가 경기 가평군 우전목장의 이병환 대표

“2001년에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됐어요. 3두가 보증종모우로 선발됐고, 4두는 후보종모우로 선발돼 후대검정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루게 된 ‘한우사육의 꿈’

어렸을 때부터 한우사육에 대한 꿈을 길러 온 이병환 대표. 꿈을 이루기로 결심한 2001년 어느 날,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의 2천평 부지에 우사를 짓고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초기 3년간은 비육우를 사육했으며, 이후 한우개량단지에서 우수한 한우 암소를 구입해 한우 번식우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임암소 65두, 육성우 22두, 거세비육우 45두, 수송아지 17두 등 149두를 사육하고 있다.



개량된 암소로 시작해 개량 속도 빨라

이병환 대표는 한우개량단지에서 10여 년간 개량업무를 담당하며 개량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한우를 사육하며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다보니 개량 방향을 설정하고 정액을 선정하는 데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다. 덕분에 일찍 한우육종농가로 선정됐고, 다수의 후보종모우를 생산했으며 보증종모우 3두를 생산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08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한우암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계획교배와 친자확인, 철저한 기록관리

한우개량을 위해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알맞은 정액을 선정해 계획교배를 해야 하며, DNA검사를 통해 친자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수정과 분만 등 정보를 철저히 기록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암소의 능력을 고려해 도태를 하는 등 고능력 암소 우군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우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발정이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생물 급여로 냄새 민원 해결

몇 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 제품을 TMR 배합기에 혼합해 급여하고 있다. 분뇨 냄새가 덜 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축사 내 축분에 소독약이 닿지 않게 하고, 축사 입구를 비롯한 주변 환경 소독에 신경 쓰자 축분이 잘 건조돼 냄새가 크게 감소했다.

보증종모우 3두와 후보종모우 4두 생산

우전목장에서 생산한 보증종모우는 권장형 KPN738(경기다산 2호)와 슬림형 KPN882(가평 보납이), 육질

형 KPN999(은하철도) 총 3두이다. 후보종모우도 2013년에 1두, 2014년에 2두, 2016년에 1두가 선발되어 보증종모우가 되기 위한 후대검정 심사를 받고 있어 추가로 보증종모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우농가로서 농학박사 과정 수료

이병환 대표는 농업고등학교와 연암축산전문대를 졸업한 후 축협에 입사해 한우개량단지 담당자로 근무했다. 직장 근무와 동시에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학위를 취득했고, 이어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부에 대한 그의 열정은 계속 이어졌고 현재도 강원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2015년부터는 전국한우육종농가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

1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육성우들

2 소와의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병환 대표



11월 축산관측

11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0월 대비 약보합 전망

사육 전망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다소 감소 예상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0.3% 감소한 264만 마리이며, 이중 가임암소는 113만 마리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256만 마리보다 감소한 252만 마리로 전망

공급 전망

- 11~12월 소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도축은 암소와 수소 출하 감소로 1~9월 전년 동기간보다 20% 감소한 55만 4천마리, 10월(1~21일) 한우 도축은 40,682마리로 전년 동기간 45,687마리보다 11% 감소
- 사육 마릿수 감소로 11~12월 도축은 전년보다 13% 감소 전망. 수입 소고기 1~9월 전년 동기간보다 18% 증가한 26만톤

가격 전망

- 11월 이후 한우 도매가격 10월 대비 약보합 전망

- 10월(1~21일)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2.8% 하락한 kg 당 18,317원
- 도축 감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감소(11월호 중앙자문회의 결과)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수요 감소 등 수요 불확실성 확대 예상
- 한우 정액판매량 감소, 송아지 생산기반 확대 노력 기울여야



* 자료제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월 한우가격 및 출하동향]

* 10월 25일 기준

구분		평년 (’11~’15)	2015년		2016년		대비(%)		
			9월(A)	10월(B)	9월(C)	10월(D)	C/A	D/B	
도축두수(두)		882,436	98,360	45,442	65,072	45,494	△33.8	0.1	
경매두수(두)		435,604	46,981	25,305	32,853	25,293	△30.1	-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3,406	18,395	19,029	18,875	18,028	2.6	△5.3	
	거세우	14,569	19,386	19,747	19,855	18,620	2.4	△5.7	
	비거세우	10,624	14,881	13,165	15,199	15,236	2.1	15.7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 원/두)	암소	3,910	5,622	5,906	5,842	5,795	3.9	△1.9	
	송 아 지	암	1,511	2,743	2,703	2,935	2,886	7.0	6.8
		수	2,045	3,420	3,376	3,848	3,643	12.5	7.9
불고기(1등급/kg)		32,690	39,360	40,223	47,520	47,501	20.7	18.1	
등심(1등급/kg)		61,957	75,020	76,522	79,800	79,860	6.4	4.4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10월 한우농가소득 추정]

* 10월 25일 기준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천 원/600kg)	경영비(B) (천 원/600kg)	소득(A-B) (천 원/600kg)
1++	21,127	7,593	4,848	2,745
1+	18,791	6,753		1,905
1	18,174	6,532		1,684
2	16,305	5,860		1,012
3	13,239	4,758		-90

* 경영비 : 2015년 한우 비육우 경영비(천 원/600kg, 통계청

* 한우거세 도매가격 기준



* 일일 한우가격동향은 「한우카우기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방법 **한우카우기** 를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 보세요.
(아이폰 기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소식

- 한우 후보씨수소
37마리 신규 선발
10월 4일 농수축산신문
- 축평원, 11개 상품 축산물
소비자가격 비교 서비스
10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
- “축산농가 부담 ‘마블링 위주’
소고기 등급제 개선해야”
10월 13일 YTN
- 한우 등급 속이기
‘농협 너마저...’
10월 14일 한국농정
- 소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이행
실태 평가, 다음달 11일까지
10월 16일 한국농정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국회
황주홍 의원 축산분야
정책토론회
10월 18일 한국농촌경제신문

지역소식

- 함평천지한우, HACCP 황금마크 획득
10월 4일 농업정보신문
- 횡성한우축제, 지역 경제효과 1000억 원
10월 6일 농축유통신문
- 강진군, 한우 6차산업화 돌입
10월 7일 한국농어민신문
- 경기도 내 ‘명품 한우’ 자라섬에서 자웅 겨룬다
10월 7일 중부일보
- 경남 한우 가격 상승여파 사육 두수 증가
10월 7일 KNN
- 축평원 대전충남, 천안 병천고교에서 한우 요리경진대회
10월 12일 라이브뉴스
- 제주대, ‘제1회 제주흑우 국제심포지엄’ 개최
10월 19일 국민일보
- 경산시, 경북 한우경진대회 최우수 시·군 선정
10월 20일 한국방송뉴스



한우정보

- 13억 중국시장 관문 홍콩에서 인정받는 한우
10월 4일 뉴스
- ‘대사각인’이용한 한우송아지 사양기술 개발
10월 6일 환경일보
- 수소에 의존하던 한우 개량 사업,
‘씨암소’에 주목
10월 10일 MBC 뉴스
- 한우 사료 생산비 40% 낮춰
10월 10일 농업정보신문
- 한우고급육 프로그램·TMR사료 우수성 ‘입증’
10월 12일 축산신문
- ‘고지방 다이어트’열풍 거세네…
한우·돼지고기값 ‘오름세’
10월 13일 뉴스1
- 한우암소 발정분비물 이용 수정적기 판별기술
개발
10월 26일 라이브뉴스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교에서 한우 우수성 홍보
10월 17일 라이브뉴스
-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한우농가 애로기술 해결
10월 18일 매일일보
- 사람에 전염 소 결핵병 1년 새 2배 이상 늘어…
한우농가 2중고
10월 18일 강원일보
- 생산자물가 10개월만에 최고…
농축산물 급등 영향
10월 19일 이데일리
- ‘생로병사의 비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단백질-포화지방 공급원…
10월 5일 글로벌이코노믹
- 한우고기 먹고 살 빠기
10월 24일 SBS<모닝와이드>
- 11월 1일은 한우 반값에 즐기는 날
10월 27일 브릿지경제
- 한우고기를 이용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열풍
10월 27일 MBC<오늘저녁>



사색에 잠긴 송아지

송아지 한 마리가 친구의 부드러운 등허리에 입을 묻고 외양간 너머를 바라본다. 한참 동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유순한 표정과 참 잘 어울리는 앳된 얼굴이 귀엽다. 🐮

* 재미있고, 뽀짝하고, 놀라운 소의 사진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자조금 소식지 이벤트'에 사진과 사연, 농장 주소를 남겨 주세요. 채택된 사진과 사연을 포토 뉴스에 실어 드립니다.

함께하는 한우자조금

한우자조금위원회는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우 산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식지 <한우자조금>을 통해 한우농가 여러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X 퀴즈

0·X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한우자조금에서 마련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담아주세요.

Q1



지난 10월, 홍콩에서는 한우 수출 확대를 위한 합동 세미나가 열렸다.

Q2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11월 11일이다.

Q3



마스크나 스카프를 착용하면 찬 공기가 바로 호흡기에 닿지 않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 응모하시는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도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10월호 0·X 퀴즈 사은품 당첨자

방승철 (9470) 석경남 (4748)
이재호 (8582)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관심 감사합니다.



Q1 지난 '추석맞이 한우고기 할인 대축제'에서는 2등급 이상의 한우고기를 시중 가격보다 약 1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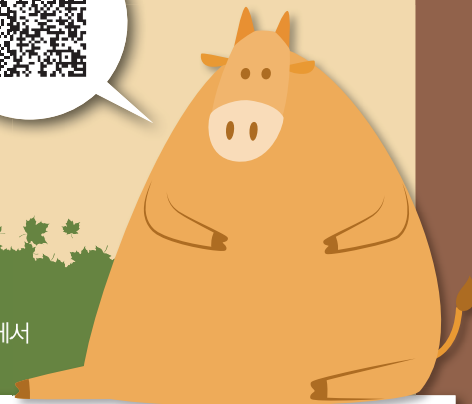


Q3 사용한 칫솔은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창가 쪽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다.

QR코드로 모바일을 사용해
간단히 접속하세요!



애독자 퀴즈의 정답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http://www.hanwooboard.or.kr>) 내 한우 이벤트 코너 혹은 스마트폰으로(인터넷 접속·'QR코드 스캐너' 검색·해당 어플 설치) 후 QR 코드를 찍어 접속하신 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합니다.



제4기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 안내

중앙선관위 9인 이내 구성, 선거일 결정,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월 1일~3일	>	선출일 40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통지	11월 4일	>	선출일 35일 전까지
선거권자 확정, 투표일시 및 장소, 선거인명부 열람, 선출구별 대의원 선거 공고	11월 11일	>	선거일 30일 전 (단일 후보 시 무투표 당선)
후보자 등록	11월 14일~16일	>	선거일 15일 전 - 선거공고 익일로부터 3일간 - 후보자수 미달 시 3일 연장
후보자 명부 공고, 선거공보 발송	12월 1일	>	선거일 10일 전
대의원 선거	12월 12일~14일 12일: 경기, 강원, 충북 13일: 경북, 경남, 제주 14일: 전북, 전남, 충남	>	임기만료 30일 전
당선인 결정	12월 12일~14일	>	다수 득표자 당선 ※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무투표 당선
당선 공고	12월 14일	>	게시판 당선통지서 공고 (선거관리위원장)